

전남 산촌 53개 면 중 52곳 30년내 소멸 위험

〈面〉

영광 낙월·순천 외서면 등

인구 10년 새 23%나 감소

젊은층 유입 귀산촌 정책 필요

전남 산촌마을 53개 면(面) 가운데 1곳을 제외한 52개 면이 30년 내 소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돼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28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전남지역 산촌은 17개 시군 53개 면이다.

화순군이 도암·동북·이서 등 9개 면으로 가장 많다. 이어 순천시 6개 면, 곡성·광양·완도군이 각각 5개 면, 구례·담양·보성군이 각각 4개 면, 강진·고흥군이 각각 2개 면, 나주·신안·여수·영광·장성·장흥·진도군 각각 1개 면 등이었다.

산촌은 임야율 70% 이상, 경지율 19.7% 이하, 인구밀도 106명/k㎡ 이하인 읍·면을 말한다. 전국적으로 466개 읍·면(109개 시·군)이다. 국토 면적의 43.5%에 해당하지만, 인구는 전국의 2.8%만이 사는 인구 과소지역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산촌 인구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남 산촌인구는 2015년 11만 4631명이었으나, 이는 지난 2005년(14만 9803명)보다 3만5172명(23.5%)이 줄어든 수치다.

같은 기간 전국 산촌인구가 155만849명에서 143만8649명으로 7.7%(11만9847명)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감소세가 3배 이상 두드러진 것이다.

산림과학원이 '지방소멸위험지수'를 적용해 전국 466개 산촌을 대상으로 소멸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80~95%의 산촌이

30년 이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전남은 53곳 중 52곳이 30년 이내 소멸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멸고위험(0.2 미만)이 2곳, 소멸위험진입(0.2 이상~0.5 미만) 50곳이다. 나머지 1곳은 소멸주의(0.5 이상~1.0 미만) 단계이다. 정상 단계(1.0 이상)는 1곳도 없었다.

지난 2000년 51곳이 정상 단계였는데, 16년 사이에 정상은 1곳도 남지않았고 52곳이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한 것이다.

특히 가임여성 인구감소가 가속화하면서 산촌의 붕괴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임여성 인구감소율(2000년~2016년) 상위 20개 산촌에 전남은 5곳이나 됐다. 영광 낙월면 -76.7%, 순천 외서면 -75.2%, 화순 한전면 -74.2%, 장흥 유치면 -72.6%, 고흥 봉래면 -72.1%의 감소세를 보였다. 이들 지역은 가임여성 4명 중 3명

이 사라진 것이다.

다행히 최근 귀산촌인이 계속 늘면서 전남의 산촌인구 감소세는 크게 완화됐다. 매년 2~5% 감소하던 인구가 2015년 0.34%로 1% 이하로 내려갔다.

2010~2015년 사이 도시에서 이주한 귀산촌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이주 후 산촌생활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고 응답자의 95%가 장기거주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산촌 인구 유입이 고령층이어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립산림과학원 관계자는 "귀산촌 지원정책 방향을 젊은층에 집중해야 한다"며 "특히 산림청의 일자리 정책과 귀산촌 지원정책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산림과학 전공 젊은 학생들을 유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청년드림사업 진행·창업가 900명 지원

광주시, 청년 일자리 확충 방안 논의

광주시는 올해 30개 사업에 469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청년일자리 2921개를 창출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다.

시는 지난 26일 오후 윤장현 광주시장의 주재로 관련 실·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일자리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청년 일자리 추가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시의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은 청년 창업지원, 청년직접일자리 및 인력양성, 청년취업 지원 등 3개 분야로 구성된다. 청년취업지원에는 9개 사업에 204억원을 투입해 310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100억원 규모의 광주청년창업펀드 운영을 통해 유망 청년창업가를 지원해 창업선도기업을 발굴 육성하며, 20억원을 들여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창업가에 대한 창업을 지원한다.

지난 2016년 광역시 최초로 도입한 청년창업트레드보드를 통해 자금 확보가 어려운 900여명(200억원)의 청년창업가를 지원하며, 관내 2개 창업선도대학인 조선대, 광주대 지원에도 나선다. 광주연립기술지주회사를 통해 올해 9개사를 창업할 계획이다.

청년직접일자리 및 인력양성을 위해 18개 사업에 203억원을 투입해 2561개의 청년일job을 창출한다. 광주청년드림사업에 30억원을 투입해 직무현장에서 경험을 쌓고 채용 가능성을 높일 방

침이다. 광주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45억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85억3300만원, 산학일체형 도제 학교 지원 35억원, 글로벌 청년취업 지원에 9억9900만원, 특성화고 맞춤형 취업약정에 4억5000만원, 청년여성 멘토링 사업에 1억5000만원, 마을청년활동가 사업 1억1400만원 등을 투입한다.

청년취업 지원을 위해 20억원을 들여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청년 고용 우수기업에 4억2000만원, 청년내일센터 운영에 7200만원을 투입한다.

이날 점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청년 일자리 사업의 사업별 효율성 점검, 예산의 조기 집행, 공사·공단 및 민간부문 청년일자리 확충 방안 등도 집중 논의했다.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참여가 절실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이를 위해 경제계와 시가 함께 머리를 맞대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윤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가 국가적 의제로 부상하고 광주청년드림사업이 지난해 지자체 일자리 평가에서 대상 받는 성과를 거뒀지만 결코 자만에 빠져서는 안된다"면서 "어떻게 청년 일자리를 극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비상한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꿈나무들의 시조 한 수 지난 26일 광주시 북구 일곡도서관 문화체험실에서 열린 '어린이 겨울방학 프로그램'에 참가한 초등학생들이 '나도 시조 시인이다'라는 주제로 색종이와 크레파스를 이용해 만든 시집을 들어 보이며 환하게 웃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 출판기념회

더불어민주당 양향자(사진) 최고위원이 28일 출판기념회를 열고 6.13 지방선거 광주시장 도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날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는 이석현 전 국회의장,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영선 국회의원과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장, 정창래, 전순숙, 최민희 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책 '꿈 너머 꿈을 향해 날자, 향자'를 통해 양 최고위원은 지난 30여 년간의 경험과 밑바닥 노동자에서 연구원이라는



리더가 되기까지의 삶을 풀어냈다. 양 최고위원은 "광주는 기회의 땅이다. 대한민국을 바꿔주는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 목숨 바

쳐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피와 땀으로 경제 발전을 이끌었다"면서 "민주, 인권, 평화를 넘어 일자리와 산업의 도시로 나아가는데 새로운 리더와 함께 위대한 도전을 시작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

전남도, 올해 5000억원 규모 발주계획 발표

도 누리집·나라장터 공개

전남도가 올해 5000억원 규모의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대한 발주계획을 발표했다.

전남도는 이러한 내용을 누리집과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에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발주하는 1000만원 이상 사업은 885건 5012억원이다. 이는 지난해(824건, 5261억원) 보다 249억원 가량 줄었다. 조달 유형별로는 공사 361건(4045억원), 용역 227건(429억원),

물품 297건(538억원)이다.

공사의 경우 지방사업을 시·군에 이관하고, 신규 발주보다는 기존 공사의 내실 있는 마무리를 위해 계약규모는 지난해 보다 줄었다. 반면, 용역과 물품계약은 소폭 늘었다.

전남도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제한 등 전남 업체 보호제도를 우선 적용하고, 발주사업의 92.4%인 807건(4862억원)을 올해 상반기에 발주할 예정이다.

또한, 관급자재 등 물품 구매방식을 개편하고, 수의계약 체결 대상자의 자격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권일기자 cki@

전남 5개 산하기관 직원 33명 통합 채용

전남도가 올해 상반기 산하 공사·출연기관 직원 33명을 통합 채용한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기관별 신규 채용 인원은 ▲순천의료원 19명 ▲전남개발공사 7명 ▲(재)전남문화관광재단 4명 ▲(재)전남정소년미래재단 2명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1명이다.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공사·출연기관의 직원 채용을 일원화해 실시 중이다. 원서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9~23일까지이며, 전남개발공사 등 5개 채용 예정 기관에서 각각 접수한다.

오는 24일 실시될 필기시험은 공통과

목과 전공과목으로 나뉘 출제된다. 공통과목은 일반상식, 전공과목은 출연기관 별 모집 직렬에 따라 다르다. 필기시험은 전남도 주관하며, 면접과 최종 합격자 선발은 공사·출연기관이 자체적으로 추진한다.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블라인드 면접이 도입되고, 올해부터 면접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해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누리집 '시험정보'와 채용기관별 누리집의 시험(채용)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권일기자 cki@

오티콘코리아 광주직영점

오픈 1주년 기념 이벤트
지금 연락주세요

“서울 본사와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보조금전용 보청기
- 보청기 테스트 &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에너지관리공단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농협 90% 융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 땅만 빌려주세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5,000평 이상)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NAVER 해가온에너지 검색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